東亞日報

新潟縣事件에 鑑하야

徹底잇는勞働團結을希望

勞働問題解決이라하면 社會主義 共産主義 過激主義의 宣傳이며 實行이라하야 厭惡하는者 有하며 單히 厭惡할뿐아니라 恐怖하며 迫害하며 壓制하고자하는者有하고 更히 勞働問題를 根本主義로하야 社會制度를 家觀을立하면 此는卽唯一史觀을事하는者라 理想는無視하고 道德을否認하고 오즉唯利만追求하는者라하야 論難攻擊 排斥에是日이不足한者有하나 此等은모다勞働問題의眞相을捕捉치못한者이며 더욱히그價値를了解치못한者라 勞働은人生의根本動力이라 此問題는單히 엇더한主義에關한問題만이아니오 人生根本基礎에關한問題이며 勞働者는社會의根本土臺라 此問題는單히 엇던利害에關한問題만이아니오 實로社會形成에關한根本問題이니 社會主義 共産主義 過激主義에依하야 비로소 此勞働問題가 完全한解決을告할必然한道理가存한다하면 吾人은맛당히 그人生의根本問題를解決키爲하야 此等主義를實現할것이오 此等主義以上의完全한解決을告할他主義가存한다하면 吾人은또한 此人生의根本問題를爲하야그主義를實現함이可하도다. 要컨대 問題는 그主義에存하는것이아니라 「勞働問題解決」에存하니라 …

장차일케된 朝鮮의한建築을爲하야 (三)

柳宗悅 (寄)

中國의思想革命과文學革命 (四)

三、思想革命의根本精神 (續)

四、反孔敎와道德革命

체르캇슈 (쇼ー리키ー)

瞬星生

二

補缺生募集 (九月六日開學)

晝間 高等、中等、初等科 各若干人
夜間 簿記科、普通科甲乙班 各若干人
願書提出 九月三日以內 試驗日字 九月四日午前十時
京城府東卄洞一番地 育英講習所

洋服實習部特設 速成實習生大募集

本店에서斯界의技術者不足을補充키爲하야本部를附設함
一、募集人員 男女約百名 但年齡十六歲以上三十歲以下
一、實習科目 洋服裁縫及裁斷法
一、出願期日 八月二十八日까지
一、實習開始 九月一日부터
一、卒業期間 滿六個月
一、修業料 金五拾圓 但出願時添付
特典
京城府堅志洞八〇番地 同春洋服店實習部 電話光化門一三二番

電氣光線理化學治療

電氣光線 難病治療 天生療院 醫學電氣學士 李秉周

●大宣傳●

●朝鮮鞋各種 ●新式洋靴各種 ●고무靴經濟靴各種 ●總고무靴各種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三四 各種靴製造 輸入都賣商 太昌號
電話本局二三四七番 振替京城一〇六七一番

西洋酒類製造實習生募集

一、葡萄酒及甘紅露製造實習法
一、ブランデ及ウイスキ製造實習法
一、サイダビール及菓子花各色製造實習法
京城府通洞一五七番地 工藝研究社西洋酒類製造部

地方人士의大福音

本部가爾來、本社內에서、業務케되와、…
說明 / 購買受托 / 販賣受托
本部에서取扱하는物品의種類

通信買賣의最高權威!!

開闢社代理部

京城府安國洞一五〇番地

勿驚!! 三角同盟의出現!!!

普書館

京城府安國洞一五〇番地

三星舍

(圖書雜誌刊行)

ClibPDF - www.fastio.com

自由國首領射殺

「더블린」來報에依하면愛蘭自由國의首相「코린쓰」氏는「롱크」의南西「반든」附近에서狙擊을遇하야射殺되얏다더라

臨終時에感慨한一言

＝愛蘭自由國政府總理「코린쓰」氏는叛徒와의戰爭에參謀將校를引率하고活動中「반든」과「맛쿠리ー푸」間列車에서狙擊을當하야自由國兵은形勢不利하얏스나半時間에亘하야奮戰한結果形勢를回復하야勝利를得하려할時에「코린쓰」氏는一彈을受하고即時絕命하얏는대此가氏의最後이라此에氏는「彼等을容恕하라」고言하얏는대愛蘭政府는彼의意外의死로因하야頗히混亂한바誰가彼의後를繼할는지姑未明이라氏의死體는汽船으로「더블린」에運去하얏는대「그리퓌스」氏의死後에「코린쓰」의兩首腦를失한事로自由國의前途를憂慮하는者도有한바「무라ー푸」,「나니」,「말코퍼」將軍及外務大臣「덧츠퍼ー」三氏가想必「코린쓰」氏의後를繼하야自由國領首어될듯하다는바「코린쓰」氏는實로愛蘭의「린컨」이라云謂된人物이라더라（더블린二十三日）

米軍의過激派連絡

「미씨간」州에서共產黨員十七名을捕縛한結果로陸海軍內에共產黨軍을編成하야米國共產黨員으로써軍事行動을開始하려는陰謀가發覺하얏는대尙且米國共產黨과過激派와의間에는確實한連絡이成立되얏다더라（華府二十四日發）

鐵罷解決復逆轉

鐵道幹部의大多數는本日午後會議를退出하얏는대其代表者는曰「吾人은依然히罷業者의舊委權을承認치아니한다」는從前의主張을支持하얏다云하는바如斯하야鐵道罷業解決은又復逆轉하는形勢이라더라（紐育二十四日發）

炭坑罷業漸解決

有煙炭坑의炭坑主側及炭坑夫側은本日更히「아이오와」州「이리노이」州「인디아나」兩州三州에서罷業問題가解決되얏다고發表하얏는대「이리노이」에서는最近「쿠리ー부랜드」에서協定된七州의有煙炭坑을基礎로解決을遂한것이라더라（市俄古二十三日發）

炭坑夫의繼續復業

＝炭坑夫同盟罷業은「이리노이」「인디아나」兩州에서解決되야石炭採掘高는是等二州의炭坑과共히顯著히增加하얏다더라（市俄古二十二日發）

米의加盟은既定的

但時期早晚이問題

前大統領候補「칵쓰」氏陳述

米國前大統領候補者「칵쓰」氏는當地의訪問者의게對하야米國의國際聯盟加入은時期問題라고述하고歐洲諸國과共同키爲하야는國際聯盟이아닐는唯一한基礎라世界政治的形勢의公平한研究者는米國의聯盟加入은單히時期問題에不過하다는意見이一致하는바이라世界는今에一箇의經濟的單位며米國은歐洲에在하야多大한利害關係를有한터임을指摘하얏다더라（維也納二十二日發）

伊太利의海軍縮少

伊太利藏相及海相은補助艦數隻의建造中止及最低四萬人의兵員縮少를含한海軍案에同意하얏다더라（羅馬二十四日發）

國際聯盟委員會

八月三十日國際聯盟事務局은第八回軍事委員會를「제네바」에開할事를發表하얏는대其內容은陸海軍及航空代表者로人道的見地로부터空中戰爭制限과軍兵力과陸軍兵力의調和陸軍縮少에關한細目研究等으로日本委員은陸軍側은館間少將海軍側은安保中將이列席할터이라더라（東京電）

獨逸의財政狀態

委員會代表聽取中

聯合國賠償委員代表者「본」,「브랫드베리ー」及「모ー쿠렐」兩氏는獨逸財政狀態에就하야同國政府로부터詳細한事를聽取하는바委員會가獨逸政府에對하야其賠償支拂停止를許할는지與否는暫定으로兩氏가賠償委員會에報告하는報告如何에在하다더라（伯林二十二日發）

「償金은第二의問題」

麵麭價高騰과獨首相의斷言

馬克의暴落임을不拘하고麵麭價는依然高騰함으로獨逸政府는首相「빌트」氏의險阻를受하고米國의小麥을輸入하기를許可하얏는대首相은「第一로빵」이오賠償金은第二問題라고斷言하얏다더라（伯林二十三日發）

擔保條件不承認

＝獨逸은聯合國側에서要求하는森林炭坑의賠償擔保條件을承認치아니한다더라（伯林電）

巴獨擁護法承認

巴威政府와聯立黨首領等은共和國擁護法에對한巴威政府事件에聯하야巴威政府委員이伯林에서決定한協定을承認하얏다더라（伯林電）

墺實業救濟要求

墺國實業家一萬人은政府에對하야救濟를要求한바形勢頗히不穩하며若政府가此에許容치아니하면暴動이勃起될듯하다더라（倫敦電）

獨逸의宗教會議

獨逸宗教會議는本日開會되얏는대「브래쓰두」「콜몬」「루헌」의大僧正等이列席하얏다더라（伯林二十二日發）

萬國海法會議開催

米十月「브랏셀」에서開催하는萬國海法會議에는日本도參加할터인바議案은大戰前부터懸案인船舶所有者의責任制限船舶抵當權에關한案이라더라（東京電）

米新關稅制定

米國은國民의게三十億弗의負擔을加할新關稅를議會에提出하얏다더라（東京電）

炭坑關係審議

聯邦委員會設置

下院은炭坑業에關한諸般事實을審議키爲하야聯邦委員會를設置하려는協定案을五十五票對二百十九票로써通過하얏다더라（華府二十四日發）

愛蘭公債問題

當地裁判所는愛蘭共和國公債를賣出키爲하야米國에서醵集된現金及證券二百五十萬弗의所有權에就하야何等決定을見하기까지는其如何한部分이던지라도受取키不能이라는旨의抑留命令을發布하얏는대右抑留命令은愛蘭自由國代表者로부터請求한것이라더라（紐育二十二日發）

魔劑賣買禁止

英佛兩國政府는魔醉藥賣買共同禁止의協定에調印하얏다더라（倫敦二十三日發）

英少佐飛行拋棄

英國世界一周飛行隊司令「쌔ー레ー쿠」少佐는病으로因하야不得已「마크밀런」大尉가「쌔레ー부」少佐를代하야飛行을繼續中인대機體에故障이生하야不得已南部印度「볼키쇠살」附近에着陸하얏는대特히同大尉는多幸히無事하며追後하야飛行을繼續할터이라더라（「칼캇타」二十二日發）

露政府囚人移他

露國勞農政府는社會革命黨囚人을秘密裡에莫斯科로부터他處에移送하얏는대其移送地의公表를拒絕하얏다더라（「리가」二十二日發）

智多의對日協議權

北京駐在勞農使節에委任

哈爾賓二十三日發「다리타」通信智多十八日發電에依하면極東共和國政府는次와如한公文書를發表하얏다더라（大阪電）勞農露西亞及極東共和國과會議開催에關한日本政府의希望에就하야本政府는次와如히決定하얏다 政府는日本軍의沿海州撤退聲明에依하야日本과의會議開催의可能을認하고漸次經濟的諸問題를協議하야適當한協約을行할權限을勞農露西亞北京駐在公使「요폐」及外務大臣「얀손」氏에게委任하되露西亞가日本의日露會議再開提議를應諾하리라고云云한點에注意할것이다

七百의總統府兵士

總統을包圍給料를要求

總統府兵士七百餘名은二十三日午前十一時黎總統이自動車로總統府에入하려함을包圍하고給料不給으로餓死할地境에서如何한方法이던지講究하기를希望한다고逼迫하얏는대總統이極力으로慰撫하야兮合으로彼等은稍辛히解散하얏스나各地에兵變,學校職員의給料要求,國務院官吏의總同盟罷業,又復今次에此事로因하야黎總統은既히私財百萬圓을投하얏다는說이有하다더라（北京二十三日發）

死刑廢止

救主教에反하는所以로外蒙領土內에死刑을廢止하는命令을發某所着電「에드린케리」長은莊督하얏더라（海參威二十三日發）

給料要求의即席談判

＝國務院官吏總統府衛兵學校職員은未拂月俸을要求하야所轄官廳에責任者를訪하고即席談判을行하려하는바責任者等은國務를安心執行키에不能이라더라（北京二十二日發）

內閣候補選任難

北京內閣은王寵惠氏의因病辭職한所以로又復混亂되야陸軍總長張紹曾外交總長顧維鈞兩氏를後任으로協議中이나承諾치아니하며政學會等은唐紹儀內閣의意案의通過에奔走하고吳佩孚氏는唐內閣의反對를支持하야王正廷氏를推薦하는바容易히解決되지아니하리라더라（北京二十三日發）

吳氏黎總統呈書

『張作霖의難問策에勿見欺하라』

吳佩孚氏는杜錫慶氏를北京에派하야其主張을說明케하고도黎總統에게書를呈하야左와如히言하얏더라「政客으로하야금張作霖氏를復活케하지아니할事奉天은陰謀를因하야[illegible]의離間을謀하고更히曹錕間에離間한後兵을入코저함인즉總統은彼說에動치말며且總統은軍閥을制하는意向인즉吳佩孚는最後까지總統擁護는不辭하리라」하얏더라（上海二十四日發）

張氏의逆襲的抗議

鹽稅差押에對한外交團抗議에

張作霖氏의東三省鹽稅差押에對하야는關係國의外交團으로부터只今까지屢次抗議를受하얏스나張氏는抗議를受할性質의것이아니라하고每々責任을北京政府에轉嫁하고應치아니함으로外交團은非常히困難한中인대奉天의英國總領事는二十一日又復張氏를訪하고談判하얏스나返히逆襲的抗議에會하얏다하며其內容은不明하나當日은日本吉原副領事도同席하얏다더라（奉天二十三日發）

南方海軍北歸의條件

海軍北歸問題에關하야薩鎮冰氏와交涉을開키爲하야廣東海軍司令溫樹德氏는二十二日海軍部에各艦長을招集하고協議한結果左와如히主張하기로決定하얏다더라（廣東二十三日發）

一、各艦의職員은免職치아니할事

二、北上과同時에各軍艦은一個年間의休息을宣言할事

三、海軍은今後國內의戰爭에는加擔치아니하고政府도亦此를强制함을不得할事

四、北歸艦隊는現政府艦隊와同樣으로待遇할事

他鐵道敷設並道路의開鑿等에從事할事

吳氏의四川討伐

吳佩孚氏의四川出兵은事實인대此에는趙恒惕湘譴司令孫傳芳等과의商議의一策도包含되얏다더라（漢口二十四日發）

上海在留議員

續々上京

孫文氏는二十三日上海滯留議員代表가國會問題에關한孫氏의意見을叩코저孫氏와會見할際孫氏는旣히終하얏다言明하고孫氏는議員等에對하야軍閥이北京에在한國會의集會를妨害코자할는지當한今日은速히上京할것이오其他의護法問題는國會에서解決을遂할것이라고述한바此結果議員一部는北上하얏는대殘部의六十名도近々北上하기로決하얏다더라

軍艦廢棄準備

近々作業着手

海軍側에서는廢艦準備作業에着手하기로하야二十三日中에廣島,橫須賀에廻航하야近々兵器의撤去를行할터이오鞍馬도旣히吳에廻航하얏는바右實施키爲하야二十七日吳에廻航할터이오鹿島도亦來月五日舞鶴으로廻航할터이라더라（東京電）

大體를如左히決定하얏는바政府의對策으로決定한것이아니오唯所管省의內務省에서決定한것인바其他各地當局과協議한後決定코자交涉中이라더라（東京電）

中兵日艦亂射

水兵二名負傷

日本軍艦鳥羽는長江湖航의途中沿岸의中國兵에게亂射되야水兵二名이負傷하고艦體에五十餘發의彈痕을被하얏다더라（上海二十日發）

財部의借欵交涉

銀行側拒絕乎

財政部는各種公債의支拂期에達한것이多함으로中國各銀行과의間에短期借欵을交涉中이나借用이全無함으로各銀行은此의引受를拒絕하리라더라（上海二十三日發）

中東線管理提議

米國々務卿「휴ー쓰」氏는中東鐵道의國際管理法規를列國에提議하얏다더라（華府電）

職工七千淘汰

＝海軍省에서는工廠整理의方針으로써職工一萬五千人의淘汰를行하기로決定하얏는대來十月第一次職工整理를行하기로內定하야工廠의兵器를返還하야約七千의職工을淘汰할터인대目下退職手當에就하야大藏省과折衝中인대確定되는대로勅令으로써手當支給의發布를行하야即時整理를開始할터이라더라（東京電）

國黨無條件解體

國民黨의解黨에關하야는二三支部의激烈한反對가有하나犬養總理의慰撫에依하야諸히了解를得하고遂히無條件解黨으로決定하얏는대目下各地方支部는臨時大會를開하고黨大會에出席할當籍員을選擧中임으로二十八日에는全部選擧를終了할터이며今回의解黨은改進黨以來第五次의解黨으로昨今本部에서는解黨宣言과共히發表할國黨의過去及現在의黨史를編纂中인대其他殘務整理에方今忙殺中이라犬養氏의外各任은各地支部大會에서責任者로부터齊明한바와如히犬養總理는其二三日前에辭表를提出하고脫退를聲明할터이라더라

行政整理實施와 失職者善後策

政府는近々斷行코자하는行政整理에依한失職者의救濟에關하야는陸軍縮少에基한失職者의救濟方法에關하야는目下研究中이나其繼續하던바近日에至하야遂히具體的으로救濟方法을決定하얏는바左右의具體的方面으로는（一）滿洲地方에在한關東守備隊撤退後에在한日人의生命財產保護方法으로는警察官으로轉換할事右는警察官의不足으로陸軍縮少에依한失職者로써此에當케할터이며（二）治水事業並港灣修築에從事할事（三）朝鮮,臺灣,樺太,北海道其他各地에移住를圖할事（四）官營工業에從事케할事（五）其[illegible]

郡制廢止內訓

郡制廢止에關한基礎點을決定하고內務省으로부터各知事에게內訓하얏다더라（東京電）

新稅不設

輸入稅는廢止해도

南口稅務課長談

總督府明年度豫算案은目下大藏省에提出하고渡東中인和田財務局長이極力으로中央政府와折衝中인바[illegible]

總督府에서는[illegible]

物價調節問題에依하야消費稅의引下案이高唱되는바萬一日本에서此種稅率이引下되면當局에서도相當히引下를斷行치아니함이不可하며特히砂糖과如한것은日本稅率을그대로適用함으로此에準하야引下를行하게될지나當局에서는此等에依하야生하는歲入減少의補充方法에關하야도目下考究中이라」云々

普校擴張

計劃內容

京城府

京城府에서는朝鮮人의向學心의熾盛에對하야優先普通學校의二部教授를開始하고一千人의生徒를收容하얏는바普通學校는本年度에各十八學級을有한[illegible]町과淸雲洞의二校를新設하고此外에於義洞[illegible]

收容 도不能할뿐아니라[illegible]

中東線城況

「陸軍省公表」中東線에在한馬賊狀況은左와如하다더라（東京電）

一、十九日午前一時頃馬賊百名이馬頭石巡警署를襲하야巡警計十名을捕하고金品을掠奪하야去하얏스며又中國兵二十名을捕하야去하얏다더라

二、二十日午後三時馬賊三百名이馬頭石을襲擊

運賃引下斷行

[illegible]

事務分掌規程改正

[illegible]

行政講習所規程

[illegible]

林野規則實施區域

[illegible]

商業會議所總會

[illegible]

定例局部長會議

[illegible]

社會事業講習會

[illegible]

會議所商業部會

[illegible]

城津北部二工區

[illegible]

京取仲買增員計劃

[illegible]

選擧의件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消息

[illegible]

釜山漁港設置問題

[illegible]

定期取引許可出願

[illegible]

商況

日本金利及市況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外國經濟電報

[illegible]

倫敦銀塊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紐育棉花

[illegible]

大阪三品

[illegible]

京株賣買高

[illegible]

京取大株損害

[illegible]

大阪株式

[illegible]

株式市場 大新暴騰 京取六十圓臺現

[illegible]

京株賣買價

[illegible]

穀物標準價

[illegible]

綿絲布標準價

[illegible]

極端追擊不可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銃殺된五代獨子

박병제의참살당하든사실 경찰의주장은누구나부인

高興에서 特派員 金井鎭發電

이십삼일오후에 우리일행은 산을넘고 들을건너서 남면진희리(南面眞喜里)에잇는 총살당한 박병제(朴炳濟)의집을 차저갓다 동리의호수는 이십호밧게아니되는 빈한한촌락인데 송숙에 싸혀잇는마을의 광경이 공연히 처량한생각을 이르킨다 이동리에는 순사한동부한명이 이마에 란환을맛고 가슴에 여원한한을품고 시시각각으로 썩어가는송장이 들어왓슬것이다 이동리에는 북석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모다붙버이는판이라 우리일행을보고 또다시 잔인한순사의 일행인가하야 놀내는모양도 가련하다 먼저그동리에사는 로인한명을맛나 우리일행의온뜻을말하고 박씨의집을일러달나하얏다 한남아 쓹는내삽작을 비스듬이누어잇고 안마당에는 박씨의로모와 그의안해가 눈물을것두고 수수를끊고잇섯다 아마이것이 칠벽량식인듯도하다 안내하는로인의 이야기로 우리가엇지하야온뜻을 알게된 고부간에는 울면희포를푸고 "이몸을 살니어주시오 무고히총살당한원수를갑허주시오 오대째독자의대신에 장승에라도 자가세워주시오" 친원한을 부르짓는광경은 아귀하고 지긔비마유버로 가슴에맛 가큰자들의눈에도 눈물이 날듯하다 박병제의시테는 너무원통하기도하고 가세도빈한하야 아죽 매장도 하지못하고 부근에 출빈하얏스나 경찰서에서는 한번도 위문하려온일도 업슬뿐아니라 육혈포에마저 현장에 넘어진것을보고 그예 그곳에잇든

그의처가 경관에게 향하야 여러번 응급치료라도하야달나고 애원하얏스나 도모지도라보지아니하엿고 시테는 현장에잇든 그동리사람들이 류영선(柳永善)의집으로 떠메어다가 이삼일이나 그곳에두엇스나 경찰서에서는 시테를 운반하는데 대하야 엇더한조처를하야 주는일도업고 매우 뎌당하얏다하며 당시의현편은 완연한 디옥이엇다고한다 총살당한 박씨의키도

이십삼일오후에 그진상을 목격하얏는 군중은안팟글놀란하고 지극히정온하얏고 육혈포소리가 난후에 비로소소동은 이러낫다고하며 현장을 목격하얏다하는사람은 이구동성 으로 경찰편에서 교도가방한하얏다고 주장하는것은 전연무근한핑게라고 팔할뿐아니라 경찰편에서는 처음에혐종을 노앗다하나 첫번에 발병계가죽고 늘재번에 로지근(盧自斤)이란녀자가 넘어진사실만보아도 전혀처음부터 탄환을재어가지고 노흔것은분명한일이다

生計조차漠然

자식도업는 과부고부의청경

과부고부의청경 박병제의 가족는 류십세나되는 로모와 삼십륙세된 그의처가 잇슬뿐이오 자식도업스며 생계도 막연하며 (…) 과부는 굼머죽을수밧게 업게되엿는데 경찰서에서는 무죄한백성을 죽이고도 아모 말이업다더라

會社印을僞造하야

사긔한셰명데포

시내인의동 오십사번디 (仁義洞五四)에 사는 장성환(張星煥)과 창신동일백삼번디(昌信洞一〇一)에사는 장봉환(張鳳煥)(二)과 동숭동일백이십이번디(東崇洞一二二)에사는김인준(金仁俊)(一)의 세명은 공모하야가지고 지나간삼월경에 시내황금뎡오뎡목(黃金町五丁目)에잇는 경성직물회사(京城織物會社)의 인장과 또는그회사의사당인 박용근(朴鎔根)의 인장을위조하야 문서를만들어가지고 시내황금뎡삼뎡목(黃金町三丁目)에 사는 박명준(朴明俊)의집에가서 쌀한가마니를사가지고 그쌀갑은 그회사에서 지불할것이라하고 그쌀을 가지고 (…) 고 기타여러곳에서 사긔한일건이 적지아니한바 필경은 사실이 탄로되야 동대문서에 데포되야 방금엄중한취조를밧는중이라더라

假金徹은警察密偵

독립단내더울려담고자한자 검사는삼년오개월징역구형

전라남도장성(全南長城)사는 괴산도(槐山度)가 삼사년전에 독립운동에 고종래황해의 징식을 배판하기위하야 상경하엿다가 경성부재동(齋洞)심재철(沈鐵峙)의집에서 상해에잇는조선독립단시청부원이라는 김연상(金演相)이라고변명을가진김덥(金澈)을맛나 독립자금을 모집할사명을 밧고 그사람과 가치 전라남북도에 의무금모집특파위원(義務金募集特派員)의사령서를 주며 그감부소명령이 라한다 (…) 약이백장을 난호아주어 활동케하다가 괴산도등이 경찰의손에 검거되여 재작년 칠월십구일에 광주(光州)지방법원에서 대정팔년 제령데칠호위반죄로 공판을밧엇든바 괴산도등이 데포되기전에 서울로 올나간것임으로 결석으로

당성군에 향인 근거를두고 활약하던 김종틱(金鍾澤)박정운(朴晸雲)황병학(黃炳學)등은 동지로 가입하야 (…) 리시청부감부소(臨時政府監部所)명의로 전라남북도 의무금모집특파위원(義務金募集特派員)의사령서를주며 그감부소명령으로 독립자금을 내어주라는 (…) 국민대회(國民大會)선전문과 (…) 오년징역 의선고를받앗든 김덥이가 금년사월십일경에 경성에서 데포되여 고창신법원을 거처 디방법원의 공판에 부치엿는데 정부안에 관계가 되엿는지 지금잡히엿는 김덥은 상해림시 인김덥을 경성 (…) 이라는 가명을 (…)

자긔일홈을 김덥이라고 변명하며 귀산도와 협동하든 김덥은 김면상인 거짓김덥인 것이 판명되며 지금은 (…) 잇는 동시에 그지는 (…)

京元全通

이십사일밤부터

명칠동안 불통되얏든경의선(京元線)은이십사일밤부터 개통되얏다더라

京元郵便復舊

경의선만배편에 경원선이 개통되얏슴으로 작일부터 경원선으로가는 우편물은 모다차로 보내게되엿고 경의선에는 여전히 문산포까지보내서 도보련락을하는중이라더라

電信大槪恢復

평양과경성사이

평양과경성사이의 뎐신은 경성과개성사이의 뎐선이 모다 회복되엿고 경성과 평양사이의 뎐선중평양신막(新幕) 사이의 고장이 잇든곳은응급

虐待는死後까지

新潟의殺人境―穴藤踏査記(四)

하나도실행은업는계약조건 주먹바람에죽어가는로동자

特派員 李相協

힘이셰이지아니하면 로동자의 두목이 될수업다는 대창조사람의말은 소위두목이란는자가 로동자를 엇더한방법으로 부리는지를 가장뎍확하게 설명할것이라할수잇다 그러면 로동자가엇더케하는 경우에 두목이라는자가 엇더케주먹을쓰는지 소위함대이니 함살이니하는 비참한문데가모다이

주먹바람 에서 나오는것으로 여긔에도 위주하야 그사실을 명백히하기에 킨원을쓰려니와 당초에 조선에서 로동자를모집할때에 소위대창조의 대리인이리는서도완(寺島完)이나 고목안치(高木安治)라는자들이 총독부의 인가를어더서 모집에응하는로동자와 계약을하얏다는 조건이실로 대창조여만 유익하게하무평평한것인데 총독부이나각디방의 도령에서 엇지하야이와가치로동자의리익을보호함이적실치못한 조건에대하야 모집을하라는 인가를하야 주엇는지그리유는 본래알수가업거니와 그

계약서에 쓰인 것이나마 실행이 잘되지아니하야 로동자의의무(義務)로뎡한것은아모리 가혹하더라도 긔어코 실행하기를 강박하되 고용주의의무로작뎡한것은 한조목이 완전히실행되는일이업다 첫재로동자를모집하거나 왕복하는려비는 고용주의담당이러고분명히 긔록하얏스나 사실은그러치아니하야 조선에서모집하야다려온로동자는 일본안에서그배로골너드려오로동자에비하야 이십전이상 삽십전가지 공전을적게주어서 명목은달나도 내용으로는 몃곱절을 샙아내이는셈이오 그다음에 로동자의 품행이부정하야 싱긴질병이외에는 몸을다치거나 병이 싱기여에는 일을 하지아니하야도 고용주가 치료비를물어주고 밥을먹여준다고분명히긔록하얏스나

치료비로 말하얏도 엇더한때에는물어주고 엇더한때에는 몸머주지아니하야 공사장에서 일을하다가 닷친데라도로동자의게 약갑을티는일이 적지아니하며 일을하다가 다치거나 두목이라는자의게 구타를당하야다친사람으로 일을못하고 누어잇는배라도 공권을 주지아니하는것은 무론이오 계약에분명히 고용주가 물어준다고 긔록하얏는 밥갑까지 매일칠십전내지 팔십전되는것을 공전도 밧지못하는 로동자의게 또박또박들러바드며

계약서에는 한달에 이틀동안식 고용주가지뎡한날에 쉬게를준다하얏스나 일이너무세차서 사흘이상을계속하야 일터를 나가기가 어려워 근력이 강건한사람이라도 매삭칠팔일을 수이지안코는 견딜수가업건마는 이것은 모다로동자가공권을 밧지안코 케돈으로 밥을사먹고 쳐마음으로 수이는것이오 두목이란자가 밥이라도먹여서수이게 하는일은 도모지업시가혹하다하며

질병으로 인하야 귀국하기를 희망할때에는 로자를 담당하야주고 일터에서 상하거나질병으로인하야 죽은때에는 백원이상의 위로금을 준다하얏스나 고역과 학대에못견되여 중병이들어죽게되어서 고국에 돌려보내주기를 간청하야도 려비를주기가앗가웁고 혹시쾌복되면 다시부려먹을 욕심으로 긔어코돌려보내지아니하며

죽은뒤에 는귀중한 싱명을잃허버린 대신으로 간신히준다는 겨우백원의위로금도 주지아니하야 지금까지 폭밤약에맛거나 전벽에서떠러저서 죄사하앗다는사람과 신병으로 죽엇다는사람이 죄지아니하나 이위로금이라는것은 중간에서 엇더한자가 먹엇는지 알수업는것도긔괴하며무심하야서 이커바린것이라는 대창조사람의변명이라는것은 더욱이 듯는사람의 분을내이는말이아닌가

奇奇恠恠한 詐欺手段

로동계약서지 주지아니한일본인

더욱이 그가각히는일은 한디방에서모집되어온 이십명이나 삼십명의 로동자중에 그와갓실행되지아니하고 도리혀 로동자의몸만 구속하는 계약서이나마 이것을 가지고잇는사람은 한명이나 두명에지나지아니한다 엇지한사닭인가하고 연고를 무르즉 당초에로동자를 모집하야계약서를줄때에

계약서이라는것은 이것은 알아볼만큼유식한사람이 가지지아니하면 아모소용이 업는것이니즉여러사람이각기가질필이아니라 그중에글자를 아는사람이대표로 가지는것이 조치아니하냐

하야 법률에어둔사람들은 지긔동무중에 한두사람만 계약서를가저도 그계약서에 쓰인권리는누구든지 주당할수잇다는 속이는말만밋고 그간교한 수단에농락되야 계약서도 밧지못한까닭으로 자긔의쓰무는 주먹과몽동이아래에 무제한으로 강제를당하고 자긔의약간권리를 주당할방거까지 손에가지지못하는 비참한디경이다 로동자가 무식한소치로이러한 사긔를 당하는것이실로 가련한것은다시 말할것도업거니와 로동자를 모집하는일본사람의 사긔하는수단이이와가치 각방면으로 교묘한데이르러는 참압히 탄식할수밧게업는것이 가장 한심한일이다

開城有志의水害救濟

임의칠백여원

개성(開城)사이의 고장는 이십사일밤에 개통되리라더라 (…) 수리를하야 회복되얏고 신막과 금천(金川)사이는 (…)

돈을거두어보내어 큰 경의선각디에는 임의수업는 큰수해가잇는중 특히 남천(南川)물개(物開)신막(新幕)등디에는 그피해가 일층심하야 다수한인명이 참혹히 물에싸혀죽고인가가 전부유실되야 처참한상태에 잇슴으로 개성의 개성청년회(開城靑年會)와 본디개와 (…) 수해구제회(救濟會)를조직하고 각방면으로활동하야 구제금으로 벌서칠백여원을모집하야 재작일에 각단체대표가 이의 물개에 나가 구제하기위하야 (…) 을열고 이에서 수입된 돈은 부녀야학 이익원을 구제비로 제공하얏다하며 그외에는 개인측으로 사백여원에 달하얏스며 또 개성자동차회사에서는 구제선전에 자동차를 무료로 제공하얏다는 등 일반의열정은 동정을 (…) 비상하더라

各團體의同情金

(…) 각단체의 동정금은 개성 (…)

新幕全滅

물개남천도

거의전멸된현상 남천(南川)물개(物開)신막(新幕)등디의 수해를조사하기위하야 개성에잇는 고려청년회(高麗靑年會)에서는 일을히사람을현장에 파견하얏든바 현상조사를마치고 도라온사람의말을들은즉 대개맛치고 (…) 또한물이잇든곳이 만흔것으로 판명되엿다 사람은 전멸이라하게되얏스나 남아잇는것은 여인의오 물개(物開)는 디형이 가장놉흔 그곳면사무소와 경찰서가 (…) 부류실되얏고 (…)

普電事件擴大乎

관계자세명을돌연히구속

전매특허의 뎐등을 밥매한다고는 산반여원의 금권을 편취소비한 죄로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여 경성디방법원 검사국으로 넘어간 보경뎐등(普慶電燈)사건이 수 리복래(李福來)외 사명은 그후 주정(酒井)검사의 담임으로 계속취조중이더니 이십사일에는 그뎐등에 대한시험을 하야보다고는중 시험이잘되지 아니하야 밤열두시까지 십리를계속한 결과 이세까지 구류하지 아니하얏든 그사건의관계자박농호(朴東浩) 리병구(李秉球)김득종(金得鍾)세명을 밤새로 구인하얏다는 등의명을 밤새로 구인하얏다는 대이삼일안에는 취조를 맛칠모양이라더라

領井浦全部浸水

개성군령정포(領井浦)에도 전부침수되야 군수들은 그가족들의 대피된 싱명을일흔 참화에 도저히 그참혹한 정상을 차마볼수업다고 말하더라

朝鮮勞働者五名

차에서뛰어나려다가 세명은중상하고두명만도주

신석현(新潟縣)디방에잇는감옥실(監獄室)로 보내든조선인로동자단데중오명은 이십이일 오후렬차로 금퇴(金澤)덩거장을통과할때에 차에서뛰어나려 다라나려하다가 셰명은선로우에 것구로떠러저서 중상하야 싱명이 위태하고 두명은무사히 다라낫다더라(금퇴뎐보)

南川에救護班

병이만히나서 총독부의의사파견

남천(南川)에서수해를당한인민 중에는 여러가지병이 제속발싱하나 그곳공의(公醫)는 치료할 재료를 전부유실하고 조선인즈사는 물에떠나려가다가 겨우구조되얏슴으로 경무국위싱과에서는 의사를 급히파견하고 적십자사조선본부에서재료를 미이고간호부를파견하야 작일 오후다섯시에 인천을떠나구조하러갓나더라

日本各地의暴風雨

동해도선긔차도위험 동경침수일만륙천호

동경(東京)에는 폭풍우가 심하야 침수가옥이 일만륙천오백팔십호에달하며 상남대긔(湘南大磯)부근에는 해수욕장(海水浴場)전부가 파괴되고 연안의동녁이 모다떠러것스며 또는침수된 가옥도 적지아니하고 근긔디방(近畿地方)과 관서디방(關西地方)에는폭풍우로인하야 농작물과 기타의손해가 적지아니하며 동해도선(東海道線)중의 유비(由比)홍진(興津)사이와 유비(由比)포원(蒲原)사이에는 물는물이범람하야 텰도선로가 모다물에장겻는대 매우 위험한상태에잇다더라 (동경뎐보)

電信電話도故障

폭우로인하야 동경시내의 뎐화는다수히 불통되얏고 동경에서 각도시로 통하는 뎐신뎐화에는 모다고장이 싱기엿더라 (동경뎐보)

臨時清潔實施

서대문관내에

시내 서대문경찰서관내에는 이

載寧附近交通

대개는회복되며

재령(載寧)사리원(沙里院)간은 이십오일부터 겨우자동차가 통하고 재령과 신천(信川)간에는 경편털도가통근거름을두고 해주(海州)로가는길은 인력거밧게 통치못하나더라(재령뎐보)

仁川水害救濟續報

인천수해에 대한의연금 (…) 인천 (…) 구제회를 조직하엿는 (…)

朱明瑞 米商組合 金一千圓 白米二十叺

水害와講演會

(…)

獨立團의活動

련이어잇는소식

(…)

濟松에逮捕된朝鮮學生

모중대사건의혐의로

(…)

逃走囚人逮捕

(…)

自動車가顚覆

(…)

阿片密賣者

(…)

中央幼稚園은

녀자에게한하야

시내인사동에잇는 중앙유치원(中央幼稚園)에서 사범과(師範科)를 (…)

義俠青年의不幸

평양고아원장김씨

평양고아원장 김병선(金炳善)씨는 그간긔홀병원(紀笏病院)에 입원하야 여러날 치료하든바 얼마전에 퇴원하야 다시병석에 누엇더니 지난십일오전여섯시에 가련히 세상을 떠낫다는데 김병선씨는 세상이 임의아는바와갓치 지금이십오세된 의협청년(義俠靑年)으로 재작년 독립사건(獨立事件)에 관계되야 악형을바든후로 간혹 병이 당시 긔홀병원에 입원하얏섯는데 그해맛참 평양시외 사동탄광(平壤市外寺洞炭鑛)에서 뎐차(電車)에 치어 다리를 상한 아해를 들것(擔架)에 담어가지고 이병원으로 들어온일이 잇섯다 그병원의사는 그죽어가는 아해어머니에게 대하야 이아해는 다른 사람의 살이라도 떼여서 붓치지 아니하면 구할수가 업다하엿는데 그어머니는 러정만하는것을 엽헤방에서듯던 김씨는

자긔의살을버혀

그아해를 구원하얏는데 그후로김군의 병은 더욱승하게되얏다 이사실이 신문에발표되매 각처로부터 동경하는인사가 금전을 보내이어 이돈이삼백여원에 달하얏슴으로 김씨는그돈으로 귀본을삼고 유지의후원을 엇어 현재의 고아원을 발긔하얏섯는데 아죽이십오세의 청년이오

天氣豫報

一日	晴
自廿五日午前六時 至廿六日午前六時	
溫度(節氏) 廿四日最高	八二·○
廿五日正午	七七·七

⊕온도비교⊕ (華氏)

前年同日(正午)	七七·七
今年同日(正午)	八一·四
日出	上午五時四三分
日入	下午七時三六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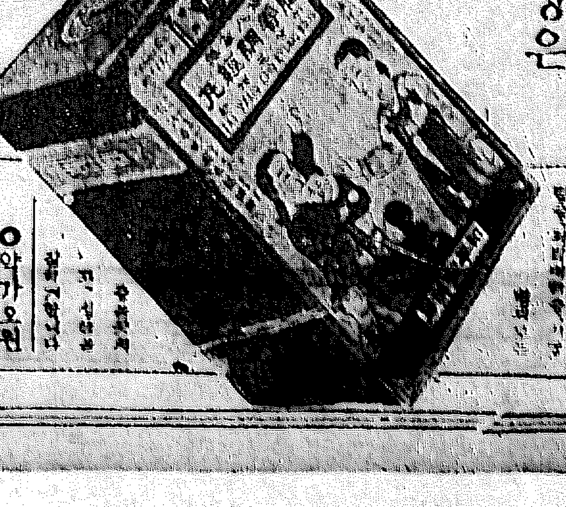
휴지통

▲경찰을믿든하고 근래위조지폐가 만히발각되야 일반이곤난다당은 지페뭇는 소문이나▲차표를 위조하야가지고감쪽가치 공차를타는일이 종종잇서서 털도당국에서는 범인을 잡으라고 눈이 붉엇다한다▲세상이 밝아가면 별별못된범죄가만히 싱기는것은 사실이라 문명이고개파고 다실라고풍이 아모리하야도 순후하지는한완고양반의 탄식도일리가 업는것은 아니지만은▲광주에서는 거지가 거지의동냥한돈을 훔치고 징역사리를 하게되얏다한다 시질보다는 공밤도 태산일듯▲하긔휴학으로 고향에도라온 동경류학성중에는 시골집에는 아니가고 경성에서 부랑성할한나고 경찰의걱정이 심한 모양인대▲과연 부랑성할 긔지 그럭치아니한지는 사실을 지세히알아보지아니하면 몸읍빔이다

胎養調經丸

우리인생 한세상은

안혼즐거움으로게 마음편하게-즐 수한디원속에서 외가친복을누리 며살게됨 것입니다



하날이 우리를내이실제

결코병이든몸으로내치지안 으시슴니다 결코근심과걱정을맛기서내치지안으시슴 니다 결코고락하고슬허운 몸으로보전지하지안이엿슴니다

원갓복을주서서 질거기지내도록 태이내셧슴니다

그께—하날이주시배아니오 제이잇서—근고함도

그께—결코팔자가안이 자녀이서—외로움도

복과락이 구함에조차오나니

天下婦人은 태양도경환 명정한효험에

피로우범물코치고 외가진실을세시 귀한자녀를니흐사

흠흠한락원속에서외 갓힌복을누리며진긔 게—이세상을지내십 시요!!

本舖 和平堂藥房

女丈夫(녀장부) (五八) 雲人 譯

순실이의 구두소리에 잠을 깨어 영연히 이러선 장필원은 순필이의 얼굴도 채ㅣ보지 아니하고 가장 엄숙한 목소리로
필 『자ㅣ갑시다』
한다 순필이는 도로혀 황당하야
순 『아ㅣ가시다니 어대를 가서요』
필 『형장으로ㅣ』
아ㅣ사필원도 역시 장미와 가치 사형만 기다리고 잇섯든 것이로다
순 『아니ㅣ어차어피 형장으로 끌려가기는 하겟지마는 아즉 그럴때는 못되엿소』
이말을 듯고 장필원은 입속말로
필 『아ㅣ언제와지이나 사라서고 싱을하여야 한단말이냐』
하고 탄식한다
순 『아니요 아모근심하실것이 아니라 드르시면 가장 깃버하실 경우이외다 당신은 장미커녀라는 의병에 드런는 녀자를 아시지요』
필원은 아즉도 짐작이 나서지 안는듯이
필 『웨ㅣ그런말을 뭇는가ㅣ』
순 『아니ㅣ당신이 아모리 사형이 결뎡된 몸이라도 지금 이신분요? 맛나보기만하면 죽엇든지 아니죽엇든지 곳의심이 풀니겟지요』
필 『에ㅣ내가 장미하고 맛날수가 잇다는 말이오?』
순 『비ㅣ그럿습니다 여러말하실것업시 자ㅣ나를 따라오시요 다리고가서 맛나게하야 드릴터이니』
하면서 거의 손목을 잡아끌듯이 재촉하는대 장필원은 오히려 의심스러운듯이 생각만할뿐이라 순필이는 곳짐작한듯이
순 『웅알것소 당신은 내가 이런말로 당신을 쇠피어 여긔서 다리고나간후 혼이나 떼일제 교인줄로 의심하는가보구려』
필 『포악한 정부에서 총을노아 녹여죽인다고하지 미움을 밧는 내가 잠깐사이라도 조흔때컵은 바들리 업지요ㅣ사형장에 올가자면 언제든지 따리나가겟지마는 그외에는 이방에서 나갈수업소』
장필원의 대답이 너무 의외임으로 순필이는 엇더케 말하여야 이사람의 의심을 풀가하고 잠ㅅ동안만 아모도 보지안는 곳에서 장미커녀와 대면을 식혀들이면 아마 조와하실듯 하기에요ㅣ』
필원은 감개가 자못깁흔 말소래로
필 『아ㅣ장미ㅣ그것은 임의 이세상을 떠난 의병의 녀장부 일흠인데ㅣ』
순 『아니ㅣ그 녀장부가 아즉 사라 잇습니다ㅣ』
필 『에ㅣ뭐엇이야ㅣ』
순 『사라서 당신과가치 엇감옥에 갓첫는데 장래 사형에 처할터이나 아즉 그차례가 도러오지 아니하기때문에 기다리고 잇습니다』
너무 의외의 말에 장필원은 참으로 장미가 사러엇슬는지 아닐는지 김히 생각하여 보려는지 자긔의 정신을 수습하려는듯이 잠간 눈을 감더니 가장 고요히
필 『응ㅣ장미가 아즉 사러서 이 옥중에 잇다니ㅣ 맥이사지하야도 죽지안앗슬리가 업슬줄 알앗더니ㅣ그러나 어대서 죽엇다는 확실한 소문은 듯지는 못하얏지마는ㅣ그러면 아즉ㅣ』
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생각한다
순 『아니ㅣ그럿케 느려지게 생각할 경우가 아니외다 그럿케 생각하는것보다 맛나서 리약이하여보앗스면 알것이 아니오』
간신각하얏스나 별로 조흔계칙이 나지안는다 한참잇다가
순 『당신은 사형이 결뎡된 몸이낫가ㅣ 설령 나에게 속아서 따라나간대야ㅣ 비ㅣ아모리 무슨봉변을 한번더 하야 죽기밧게 더하겟소ㅣ 속아서 죽으면 총을노아 녹여죽이는 사형은 면할터이닛가 별로 해될것은 업지요 속는셈잡고 나를 따라오시면 고만이지요 죽기로 결단한 몸이 무엇이 그럿케 무섭다는 말이오』
필원은 순필이의 비열한 말을 김히 비웃는 태도로
필 『무엇ㅣ무서워하여ㅣ 의병의 용사는 「무서워한다」는 말은 무슨말인지 모르는말이외다 다만 죽을때에 이르러 인정에 슐리는 마음을 가진자는 자긔의 약한마음에 자긔가 속아서 행하지 아니할 일을 행하야 최후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것이오ㅣ비ㅣ나는 속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그런것은 조금도 무서워하지안소마는 용사의 명예를 중히녀이는 나로는 결코 할수업소 나를 감방에서 끌려내고십거든 형장에 보내는 정식의 수속을 것처가지고 오시요』
추상가튼 말이 나올사록 결심이 더욱 견고한듯함으로 순필이는 거의 엇지할줄을 모르고 군인이란 이와가치 우리와는 마음이 틀니는가하고 놀내이엇스나 고자도 한번 먹엇든 마음은 좀처럼 고만두지안는 위인임으로 살시간에 징
순 『정식의 수속이래야ㅣ 내가 이와가치 밤중에 몰내오는것을 보면 짐작이 나시겟지요 엇재든지 안될법을 범하면서 오는구려ㅣ무슨연고로 내가 당신때문에 법을범하고 왓지 이러켓소 밧게서 법을범하고 와서 당신을 살녀내여달나는 사람이 잇스닛가 그럿치요』
은근히 장필원의 동지자가 부탁한듯이 말부리를 돌기이매 장필원은 비로소 마음이 겨우 움작이는듯이
필 『아ㅣ그러면 세상에는 아즉도 나를 생각하야주는 사람이 잇난ㅣ』
순 『비ㅣ잇는것갓습니다 의병의 용사로 잡히지아니한 사람도 엄지안아 잇스닛가ㅣ』
필 『그러면 당신에게 부탁하든 사람은 엇더한 사람입되가』
순 『비ㅣ농군가치 차리고 날마다 이시장에 드러오는대 억개통이 석버러지고 얼골이 검고 그리고 팔궈운이 억칭나게 만흔』
하고 말을 내이매 장필원은 알아채인듯이
필 『그러면 ㅣ』
순 『아니 일흠은 사지 말슴하지안으셔도 당신이 짐작만 나시면 고만이올시다 형편이 그러하닛가 다른 관원이 자는틈을 타셔 당신을 감방속에서 이십분동안만 장미커녀에게 맛나도록 하야드린다는것이니 아모 수상히 아실것 업습니다』
이와가튼 설명을 듯고 참으로 의심이 풀닌후에는 장미를 맛나보고십흔 생각이 조수가치 밀녀와서
필 『아아ㅣ고맙소 정말 장미를 맛날수가 잇습닛가 자ㅣ 좀 다러다주시요 자ㅣ어서ㅣ』
하고 장미를 그리울든 마음으로 그럿케 엄숙하든 그식은 다ㅣ어대로가고 거의 환심장이 된듯하다

共濟支會發會式
慶南泗川郡昆明面에서는 本月十八日下午三時에 朝鮮勞働共濟會昆明支會發會式을 黃鼎烈氏司式下에 開한바 來會者 實로 六百餘名인대 旣히 入會한 會員이 五百餘名이라 金容新氏의 經過報告 又는 規則通過를 맛치고 任員을 選擧하니 氏名은 左와 如하더라
執行委員長 黃鼎烈 內務執行委員 金容新 朴漢浩 鄭顯完 朴祐鍾 柳有宗 李守元 朴相琥 金鎭九 李彰來 姜珍錫 金聖世 文昌植 外務 李圭必 李祺鎬 金相魯 金相範 金庠斗 金在洪 姜珪華 黃永文 鄭駿烈 姜在雲 姜在新 鄭希秀 孔柱柱 李鶴來 鄭永祚 李炳龍 李相奐 姜在敬 李圭徹 姜大性
其後晉州支會代表 朴厚儀 昆陽 崔榮範 趙昇濟 諸氏의 祝辭가 有하고 同六時半에 閉會(晉州)

潭陽產業組合狀況
旣報와 如히 全南潭陽은 竹細工의 生產地로 有名한 地方이라 從來는 小規模의 事業에 不過하더니 客年十二月頃부터 製品을 改良하고 產業의 發展을 目的으로 竹製品全部를 網羅하야 產業組合으로 變更하고 當局에 承認을 請하얏든바 八月三日付로 承認되얏는대 諸出入合計가 四萬九千二百二十七圓인바 但 四月로 七月末外지 四個月間 共同販賣額이 數量 八十萬一千三百四十六個 金額 二萬二千三百二十七圓二十三錢이라 向 各處의 注文이 日增月加하야 業績이 良好하다더라(潭陽)

留學生의 各團寄附
淸津居住 張彩極 金基道 南潤九 方昌祿 外 諸氏는 東京留學生으로 夏期放學에 故鄕에 도라와 演劇團을 組織하야 府淸津座에서 一夜間 興行하얏는데 一般人士의 同情金과 入場券收入이 略 二百圓이라 寄費를 除한 殘金 一百八十圓으로 四團體 幼稚園, 補習學校, 靑年運動部, 勞働共濟會에 各四十圓式 寄附하얏다더라(淸津)

昌原郡幼年蹴球會
慶南昌原靑年團體育部에서는 八月十五,六,七 三日間 幼年蹴球大會를 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 開하얏는대 參加團體는 十三이라 어리고 嫩弱한 幼年의 氣力은 果然 이로부터 發育될지로다 同會長 金鎭漢氏의 開會辭와 審判 黃信性氏의 嚴正한 指揮下에 第一回開戰을 始하게 되얏는대 一般觀衆의 拍手소래는 各選手의 意氣를 一層 助長한바 第一回豫選戰은 午後五時半外지에 맛치고 翌日午前十時부터는 第二回豫選戰을 開하야 午後六時外지 繼續하고 其翌日의 決勝戰은 正刻前부터 雲集한 觀覽客이 人山人海를 成하얏다 白虎, 檜山 兩軍의 勇戰은 頗히 壯觀이엇는대 優勝은 結局 白虎軍에 歸하얏스며 參加團은 如左
幼年軍, 强勇軍, 飛虎軍, 正義軍, 檜山軍, 義勇軍, 白虎軍, 日光軍, 海鳥軍, 라이거軍, 啓光軍, 强虎軍, 立武軍(昌原)

水害應急修理費
道에 被害된 忠北管內 水害應急修理臨時費用은 如左

美湖川假橋	三,〇〇〇圓
內秀橋及暗渠	五〇〇圓
平洞橋	七五〇圓
周浦橋	九〇〇圓
下所橋	四〇〇圓
合計	五,五五〇圓

(大田)

統營學友會定期會
統營學友會에서는 本月十九日午後三時 統營公立普通學校內에 第五回定期總會를 開하고 (一)收支報告 (二)規約改正의件 (三)任員改選의件 (四)運動場에 關한件 (五)其他를 決議하얏는대 今般被選된 任員은 如左하다더라
會長 金洪正 副會長 金宗元 幹事長 高甲奎 幹事 朴貞鎬 李鍾迪 金思璵 鄭衡隣 金琪英 金在華 池弘圭(統營)

市場位置變更在邇
全南康津郡寶巖市場을 道岩市場으로 名稱과 位置變更에 對한 出願의 件은 日間 道知事의 許可가 有하리라더라(光州)

鳥致院驛新築期
京釜線 鳥致院驛은 鳥淸線開通에 伴하야 旅客과 貨物이 增加하야 從來의 驛舍는 狹隘함으로 來十月上旬부터 新築工事의 起工에 着手하야 明年四月末外지에 竣工할터이라는대 建坪 五百十坪 總工事費 六萬圓이라더라(鳥致院)

規則改正後檢查米
群山穀物檢查所에서는 八月一日以後 檢查規則 改正實施에 依한 本月十五日外지의 檢查成績은 如左 玄米 五千五百叺 白米 一萬四千五十四叺인대 一等 三千三百十六叺 二等 一萬一百四十一叺 等外 二百叺 不合格 二百七十七叺(群山)

高橋氏의 學校計畫
平壤에 잇는 基督敎會牧師 高橋蘆藏氏는 十三年間을 傳道에 從事하는 一方 朝鮮靑年을 爲하야 每事에 盡力한바가 多하더니 今般에는 敎育에 몸을 두고 活動하는바 沙里院을 目的地로 定하고 私立學校를 設立키로 計畫中인대 財政은 아메리카人式으로 日本人富豪者에게 寄附를 請하되 三萬五千圓의 預算이라는바 當地有志 數十人이 後援을 하야 高橋牧師는 總督府에 交涉코자 八月十九日 夜列車로 上京하얏다더라(沙里院)

大東消費組合總會
大田大東里 閔泳斗 外 諸氏의 發起인 大東消費組合이 創設되얏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去二十二日下午九時부터 大東里 街里에서 創立總會를 開한바 閔泳斗氏 司會로 趣旨說明 經過報告 會員募集等 順序를 畢한後 任員을 選擧하얏는대 氏名은 如左
組合長 李吉用 副組合長 閔泳斗 財務 沈相玉 書記 張昌吉 協議員 李晟浩 朴犇尙 金光順(大田)

群山府來年度事業
群山府의 來年度 新事業은 下水開鑿, 上水道擴張, 市街整理等인바 下水道開鑿費는 總督府의 補給을 請하고 上水道擴張은 谷沃水利에서 給水케할가 又는 大水源池를 新築造할가 함에 在한대 市街整理는 多大한 經費를 要할터임으로 具體的 決定은 無하다더라(群山)

晉州勞働共濟講演
朝鮮勞働共濟會晉州支會에서는 今番 地方勞働狀況 視察의 途中에 在한 京城本會委員 申伯雨 白光欽 兩氏를 請邀하야 去十九日下午九時 晉州飛鳳洞 同支會館에서 特別講演會를 開하고 申伯雨氏는 「勞働者의 時代」 白光欽氏는 「勞働萬能」이라는 題로 略三時間에 亘한 數千言을 試한바 當日入場者는 六百餘名에 達하야 盛況을 이루엇더라(晉州)

昌原公普同窓會
昌原公立普通學校卒業生同窓會는 八月廿日午前十時에 第三回定期總會를 當校講座에 開하얏는대 臨時會長 黃信性氏 司會下에 會員點名及經過報告 任員改選 前會長紀念의 件 其他諸項을 決議한바 改選된 任員은 如左
會長 黃信性 理事 金漢觀 安正奎 會計 金秀煥 書記 李迪致 秋仁祚(昌原)

夏令會幻燈講演
臨陂耶蘇敎長老派에서 今夏에 夏令會를 開하얏는바 今月十一日부터 一週間 豫定으로 當地禮拜堂內에서 每日午後六時에 幻燈及講演을 行하얏는대 演士는 尹和洙 金斗植 姜鳳羽 姜甚與 諸氏요 聽衆은 每日 六七百名에 達하야 盛況을 呈하얏다더라(臨陂)

高敞面長臨時會
全北高敞郡廳에서는 去十八日午前九時 公立普通學校內에 全郡各面長以下 書記 一人式을 招集하야 臨時會를 開하고 來十二月中 全羅北道府郡聯合物產品評會에 對하야 出品事項을 決議하고 翌日午後二時에 井邑郡古阜水利組合區內 面貯水池를 視察(高敞)

光州公普同窓會
光州公立普通學校卒業生同窓會 第十七回의 定期總會를 去二十日午前十時 興學館內에 開하얏는대 參會者가 百餘人에 達하야 經過及會計報告가 有한後 茶菓의 饗應과 女子會員의 唱歌等의 餘興으로 午後二時頃에 散會하얏다더라(光州)

鼎巖講習敎舍新築
慶南宜寧郡宜寧面 鼎巖里 有志諸氏의 發起로 今年四月 私立鼎巖講習會를 創立하고 五月一日부터 男女 六十餘名의 學生을 募集하야 講授하든바 鄭鳳氏가 義務로 敎授에 努力한다함은 旣히 本報에 報道한바이어니와 其後 漸次 學生이 增加하야 甲乙丙 三班의 學生이 八十餘名에 達하야 前敎室로서는 到底히 收容키 難함으로 同會任員及有志諸氏는 此의 救濟策을 討議한 結果 敎舍를 增築케되야 同里 籠巖契資金及洞財外 有志諸氏의 贊助金을 收合하야 去六月一日부터 建築工事에 着手하얏는바 今月末日頃에는 竣成될터이라하며 落成式은 陰七月旣望으로 定하얏다는대 任員及講師는 如左
會長 崔斗文 副會長 金自俊 總務 金國仁 財務 劉又龍 書記 黃鶴鎭 學務委員 朴昇祿 李金龍 林仁鳳 劉龍九 講師 黃錫國 金鳳翊 李乙先(宜寧)

忠北水害와 復舊費
過般水害로 忠北管內 被害場所에 關한 詳細調査에 依한 報道는 旣報하얏거니와 이에 多少增額한바 아니라 永同茂朱間 被害個所를 合하야 實로 四十萬圓以上에 達한다는대 槪算은 如左
▲長湖院延豐間 被害四〇所 工事費 九四,九三九圓
▲鳥致院忠州間 被害三九所 工事費 一五六,三四八圓 (美湖川橋新設費十萬圓包含)
▲永同茂朱間 被害三所 工事費 三〇,九一五圓 (永同橋架設費包含)
合計 被害個所 一一八個所 工事費 四〇七,七四三圓(大田)

● 茂長少年部總會 茂長少年部에서는 八月二十日午後一時에 第三回定期總會를 當地靑年會館에서 部長 金容灐君의 司會下에 開催하고 順序에 依하야 諸般事務를 處理하얏는대 改選된 任員은 如左
部長 金戰哲 總務 金仁機 庶務 朴孝烈 會計 金明植 金永獻 體育 金容從 文藝 金顯初 和睦 金禮大(茂長)

● 朝鮮自働車會社總會 忠南公州 朝鮮自働車運輸株式會社에서는 本月十八日午後二時부터 當地 常盤旅館에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重役補缺選擧와 營業方針改善의 協議가 有하얏는대 被選된 重役은 如左
取締役 白寅鉉, 高木友之助, 宮本淸吉(公州)

● 少年部一週年紀念 茂長少年部에서 一週年紀念式을 八月二十一日에 擧行한바 餘興으로 靑年部運動場에서 城內, 玉井, 中洞, 金井, 四洞里 選手 七人을 一團으로하고 午前十一時부터 蹴球競技가 有한바 觀衆 千餘의 盛況을 呈하얏스며 最後勝利는 中洞軍에 歸하야 午後七時에 優勝旗授與式을 行하고 當夜 素人劇外지 興行하얏는대 二百名觀衆에게 만흔 늣김을 주엇다하며 有志人士의 不少한 贊助金이 亦有(茂長)

● 光州敎會兩分敎 光州邑內耶蘇敎會는 逐日擴張되는바 北門外敎會에서는 今般 …… 內坊兩處에 新敎會를 分立하얏다더라(光州)

各地靑年團體

暴雨中의 野球戰
八月十九日午後三時부터 開城 松都高等普通學校運動場에서 松高對京城스란나드軍의 野球試合이 有하얏는대 兩軍選手의 暴雨를 冒하면서 男子답게 내이는 氣勢는 實로 壯觀이엇스며 同六時半에 十五對三으로 松高軍이 大捷하얏더라(開城)

夏期活動寫眞大會
文化事業基本金을 募集하기 爲하야 全州勞働會主催 全州靑年會後援으로 本月十七,八,九 三日間 全州座에서 夏期活動寫眞大會를 開催하얏는대 有志의 多數한 義捐金이 잇섯다더라(全州)

統營靑年團定期會
統營靑年團에서는 本月二十日午後二時부터 當地協成學院內에서 第六回定期總會를 開하고 (一)收支報告의 件 (二)團務經過報告의 件 (三)規約改正의 件 (四)會館建設의 件 (五)…… (六)會費에 關한 件 …… 任員改選의 件을 決議하얏는대 今般改選된 任員은 如左하다더라
團長 林輔圭 副團長 李庚根 …… 外十人(統營)

勉勵靑年月例討論
大邱府南山町耶蘇敎會內 勉勵靑年會에서는 去二十一日下午八時三十分부터 南山町禮拜堂內에 月例討論會를 開하고 …… 問題下에 力耕便에는 周斗石, 金東文, 李聖在 三君 …… 便에는 金秉柱, 金邦, 徐徹根 三君이 各各 登壇하야 熱辯을 揮한바 場內의 空氣는 緊張하얏고 自由辯論者 六七人이 有하얏는대 後 朴永晟牧師의 批評으로 力耕便이 勝利를 得하고 同十一時頃에 閉會하얏다더라(大邱)

遠征軍과 諸氏義捐
陝川靑年會體育部는 夏期遠征團을 組織하야 同一行은 團長 鄭敬烈君의 引率下에 八月十三日 當地를 出發하야 堂堂한 氣勢로 到處에 交戰 凱旋한바 日期及場所는 如左
八月十四日 昌寧 十六日 靈山 十八日 咸安 二十日 宜寧
以上 遠征團旅費中으로 廬浩容氏가 金二十圓 金鍾錫氏 金五十圓 李泰熙氏 金三十圓의 義捐이 有하얏다더라(陝川)

聯合傳道講演會
木浦基督靑年會와 女子修養會聯合傳道講演會는 去十七日夜부터 一週間豫定으로 同地陽洞禮拜堂內에 開催하얏는대 每日 五六百名의 聽衆으로서 大盛況을 呈하얏다더라(木浦)

金海對梁山蹴庭球
梁山靑年會體育部員 二十七名은 部長 嚴柱泰君의 引率下에 去十九日午後 金海에 到着하야 廿日午前十時 金海靑年會軍과 同運動場에 蹴球戰을 開하얏는대 二對零으로 金海軍이 勝利를 得하얏스며 午後三時부터 更히 庭球戰을 開하얏는대 梁山軍이 敗하얏다더라(金海)

醴泉庭球團消息
本報에 旣히 報道한바와 如히 醴泉庭球團은 去二十日 安東에 遠征하야 善戰中이든바 尙州靑年會體育部에서 試合하자는 飛電이 來함으로 不得已 安東復戰은 中止하고 二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醴泉公立普通學校에서 尙州對醴泉庭球試合을 開하얏는대 定刻前부터 觀衆은 立錐의 餘地가 업시 四方으로 雲集하야 人海를 成하얏스나 下午二時에 至하야 暴雨가 나리어 當日은 試合을 中止하고 翌日上午十時에 다시 試合을 始하엿는대 下午一時에 至하야 畢竟은 優勝이 尙州軍으로 歸하고 散會하얏고 同二時에 茶菓會가 亦有하얏다더라(醴泉)

麗水素人劇來光
麗水地方靑年會에서 同會經營의 勞働夜學基本金에 充用키 爲하야 組織한 巡廻素人劇團一行은 去二十一日 光州에 到着하야 光州靑年會의 後援下에 同日下午八時半 光州座에서 「犧牲의 苦」라는 藝題로 興行하얏다더라(光州)

● 木浦庭球隊遠征 木浦靑年庭球團一行은 往復三日間豫定으로 康津郡兵營에 開催된 全南庭球大會에 參加키 爲하야 去十九日午前九時에 目的地를 向한바 隊員은 全部 二十名(木浦)

暑中補血良材

虛弱者의 歎
積財萬金이 不如健康在身이오 擴地千里가 不如長壽無病이라

壯筋補血 大力丸

(主治効能)
△腎氣不足 △房事不容 △腎虛腰痛 △病後氣短 △手足厥冷
△陽痿不起 △陰虛火動 △房後勞困 △形容蒼白 △遺精多夢
其他 先天後天 不足의 諸症

金言
天無雲則氣淸이오
人無病則身旺이라

壹個月分 四圓五十錢
二個月分 八圓五十錢
三個月分 十二圓

洪濟藥房 洪 李

營業科目
各種洋襪機械 同附屬品一式 …
世信洋襪所本店
大邱府南城町一〇二

沙里院
洋服實習生大募集
一、男子百五十人 女子五十人
一、志願書接受 八月末日外지
特히 今回入學生에 限하야 七月謝金을 免除하고 多大이 特典을 附與함
詳細는 來問하시오 規則送呈
沙里院本町
殖產洋行洋服敎習院
長電話 百三十八番 振替京城五二一九五番

補缺生募集
一學年生 三十人 二學年生 若干人
願書提出 八月三十日以內 試驗日字 九月一日 二日
平北定州 私立五山學校

求業諸氏의게
專賣特許內外實用品 …
原料確實貸與
熟練日收三圓 特約店大募集(來回)
(原料一組代) 九圓八十錢 八圓八十錢 二種이 有함
(製作品) 大阪友榮商店代理人이 小店製品購入係에 出張即時買收
釜山府草梁洞四百六十番地
大阪友榮商會 朝鮮總特約 友昇商會 振替京城四八〇九番

朝鮮關係 好評圖書

書名	著者	冊	定價
朝鮮犯罪即決綱要	平山利治	一	一、〇四
實際的犯罪搜查	野村蘊	一	一、六六
朝鮮親族相續慣習類纂	切山篤太郎	一	一、八六
朝鮮行政法	萩原彥三	三	三、三〇
朝鮮司法警察法論	內田達孝	一	一、八六

發賣元 嚴松堂書店

團成社
八月廿四日부터 高眞全部交換
黃金窟 / 第三列車 / 結婚의 陷穽 / 사ㅣ가스王 / 皇后崎心中 / 路一疊 / 失婦와 母 / 暗號의 四美人

海昌洋行

모모에
最新總과靴 各種
모모에 洋靴總賣所